



국립공원에 가면 생명 이 있다

-환경과 핵위기의 시대를 사는 지혜-

이 경 식 < 국립공원협회 회장 >

인간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향상시켰던 산업발달은 이제 도리어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산업발달의 필수적인 부산물인 환경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과제가 아니라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전지구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성장은 잘살겠다는 목적에 대한 수단이다.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아래 더이상 환경을 더럽히고 파괴한다면 「잘살아보겠다」는 물질적 목적에는 도달하겠지만 동시에 자연환경의 파괴와 인성(人性)의 매몰에 따른 결정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지구는 아직도 여전히 종말의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 환경의 위기

와 핵의 위험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 지진같은 자연재해와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고온현상과 가뭄의 장기화 등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추정된다는게 기상학자들의 분석이다.

「환경시계」가 있다고 한다. 환경과 괴로 지구가 멸망에 이르는 시각은 12시인데 현재 시각은 9시 4분으로 지구는 지금 극히 불안한 상태에 접어든 단계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환경시계는 92년 7시 49분을 시작으로 93년 8시 19분, 94년 8시 48분, 95년 8시 49분, 96년 9시 13분 등 매년 12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왔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처음으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다. 그러나 삼림파괴와 멸종식물증가 등으로 분침은 앞을 향해 느린 움직임 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핵(核)쪽은 더욱 심각하다. 「핵시 계」는 현재 지구 종말 9분전이다. 지구종말시계가 자정 14분전에서 9분전 으로 조정된 것이다. 미국 시카고 대 학이 발행하는 격월간 「핵과학」지 (誌)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실험과 핵보유국들의 감축노력실패 로 인류파멸의 위험이 한층 높아졌 다」고 전제하고 핵시계를 지구종말 9 분전으로 조정했다. 핵시계의 자정 (子正)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 과학잡지는 47년 엘버트 아인슈 타인 등 미국의 핵무기개발 맨해튼 계획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이 창간했 으며 표지에 비정기적으로 「지구종 말의 시계」를 실어왔다. 그 분침이 자정 쪽으로 가장 근접했던 때는 미 국이 수소폭탄실험을 했던 53년으로 당시는 자정 2분전이었다. 또 미국과 옛 소련이 냉전상황에서 대치하던 88년에는 6분전을 가리켰다.

환경위기와 핵위협으로 하여 지구 는 지금 뜨거운 양철지붕 위에 올라 앉은 애처로운 모습이다. 이 위기의

지구에 사는 사람들 또한 위태롭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선 지구를 살려야 한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구라는 이름 의 별뿐이다. 현재 생물이 살 수 있 는 다른 혹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생물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혹성이라 도 발견돼 그곳으로 이주하는 방법 이라도 알게되기 전까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별인 이 지구 권을 되살리고 가꾸어 가는 것이 가 장 시급하고 현명한 방법이다. 사람 은 단순한 생물을 넘어서는 존재로 서 아직까지는 이 우주의 유일한 오 아시스인 지구의 보호자 역할을 최 우선으로 해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구는 불모지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의 지구를 살리는 길이 있다. 숲을 가꾸고 물을 살리고 땅을 복돋는 일이다. 아울러 자연에 가하는 일체의 파괴와 훼손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일이다. 그 길만이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구제하는 길이다. 우리들의 국립공원의 숲과 물과 땅과 그 품에 서식하는 온갖 동·식 물이 바로 이 위기의 지구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들이다. 그래서 국립공 원에 가면 우리는 「생명」들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숲이다. 숲은 비를 내린다. 숲 속 수증기가 폭풍우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울창한 우림은 스스로 비를 만들고 목을 축인다. 나무를 베어내면 강수량이 줄어든 뿐만 아니라 베어낸 틈으로 햇볕이 들어와 숲이 말라 버린다. 또한 녹음이 짙은 숲 속에서는 피톤치드(Phytoncide)라는 방향제(芳香劑)가 나온다고 한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산하는 이 물질은 흡입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내분비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림욕은 이러한 숲 속 공기의 정화작용을 통해 심적·육체적 안정을 도모하는 자연건강법이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모든 자연공원과 이 땅의 숲들은 이 피톤치드의 덩어리요 그 보고(寶庫)이다.

물과 강은 창조주가 빛 다음으로 만든 자연이다. 탈레스가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한 말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상의 4가지 근원물질의 하나가 물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어느 집단이나 사회에 있어 강은 젖줄이다. 강을 따라 땅이 비옥해져 그곳을 중심으로 모

듬살이가 생겨난다. 땅을 의지해 생산물을 일궈내며 먹고살다가 시름겨워진 사람들은 강변에 모여들어 노래와 춤사위로 허리를 뿔다. 그렇게 노래와 흥이 생산의 터전을 곰삭인 게 지역문화이고 그것의 확대가 문화의 발전이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창조의 섭리와 자연의 순리를 사람들은 쉽사리 깨닫지 못한다. 흙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이뤄진 숲에서는 물질의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낙엽이 지고 썩어서 흙을 만들고 물을 저장한다. 태초에 숲과 물과 흙은 깨끗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자연의 파괴와 인구의 증가, 산업화는 숲의 남벌, 물의 오염, 흙의 해체(解體)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절망하지 않는다. 숲과 흙을 고스란히 보듬어 안고있는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국립공원을 가꾸고 지키고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할 것인가.▲▲